

劫 밖의 노래 끝나니 소쩍새가 우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㉔ 제자 만공 스님 추모송

경허법사영찬 (추모송)

빈 거울에는 본래 거울조차 없고,
소름 깨달음에 일찍이 소도 아니로다.
거울도 없고 소도 아닌 곳곳마다
산 눈 자유로이 슬과 다투 색이로다.

鏡虛本無鏡 惺牛曾非牛
非無處處路 活眼酒興色



그림·박구원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
신 분

바로 경허 선사이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
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만공 스님이 시에서 '술에 취해 꽃밭 속
에 누우셨도다'는 구절은 스승 경허 스님
의 변방을 떠도는 고독한 삶을 함축하고
있다. 술은 스스로를 이류중행에 몰아넣기
위해 취하는 방편이며 꽃밭은 스스로 선택
한 가시밭인 것이다.

제자 해월 스님과 만공 스님은 1913년 7
월 25일 갑산 난덕산에서 경허 스님의 시
신을 운구해 다비에 모셨다. 당시 경허 스

님의 저고리 속에는 계승이 들어있었다고
전한다.

삼수갑산 깊은 골에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려라
천리 고향 인편이 없어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 구름에 부치노
라

三水甲山長谷裡
非俗非僧宋鏡虛
故鄉千里無人使
別世悲報付白雲

제자 만공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법은
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산하를 떠돌던 날
들을 생각하며 스승의 잔해를 불태웠다. 다
비의 불을 붙이면서 만공 스님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가슴에 담은 노래 한 소절을
불렀다.

'함복 갑신군 응이면 난덕산 아래에서
돌아가신 법사스님의 다비 때 부르다' 라는

삼수갑산서 성속 초월

인편 없어 흰구름에 소식 전해
그 뜨거운 일성 지금도 전해져

긴 제목을 가진 계승이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같은 나그네가
있어 난덕한 아래서 겸외가를 그쳤도다
나귀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재가 돼 스러
지니 날은 이미 저물고 먹지도 못하는 소
쩍새가 '웃적다' 우네

舊來是非如如客
難德山止劫外歌
驢馬燒盡是暮日
不食杜鵑恨小鼎

만공 스님의 계승처럼 나귀의 일도, 말의

일도 다 재가 돼 스러지고 날은 이미 저물
었다. 시비에 물들지 않는 바람같은 나그네
가 영원히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남기고
이름 끝났다.

다만 먹지도 못하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경허 스님은 술에 취해 꽃밭 속에
누운 것이다.

경허 스님은 그가 떠돌던 고향의 소쩍새
울음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의 회랑(回廊)
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남기고
본원정정불(本源淸淨佛)의 세계로 떠났다.
그리고 지금 현대 한국 선의 회랑에는 여
전히 그의 크나큰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경허 스님은 한국 선불교 중흥의 뜨
거운 불을 당긴 존재다. 경허 스님이 깨부
순 불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통해 한국불
교는 다시 생겼다. 경허 스님 문화에서
배출된 고승들로 현대 한국불교는 비로소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됐다. (경허 선사 수행
일화를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의 생생한 法香, 아직도 우리 곁에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추모 다례제 봉행

한국불교총흥조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다례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6월 14일 열린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다례제에서 스님의 행
장을 봉독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한국불교총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추모다례제가
봉행됐다.

열반 100주년 다례 봉행위원회와 제7
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지운)는 6월 14
일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열반
100주년 다례제를 열고 경허 스님의 선
언과 법향을 추모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
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
를 통해 "경허 선사의 선풍진작은 오늘
사해오호에 가득하다"고 경허 스님의
업적을 찬탄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경허 스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수
행 정진력과 동체대비 실천, 무장무애
한 대자유인의 삶을 가르쳤다"며 "자성
과 색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스님의
열반 100주기를 맞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가 우리가 가야할 길
을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도들을 대표해 나온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경허 스님의 선업을 기리
기 위해 사부대중이 초발심으로 노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정 스님은 인사
말을 통해 "선사가 가신지 100년이 되
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찬연했던 무
심도인의 본모습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허 스님이 화광동진의 정신
으로 한국불교와 중생에게 정법안장의
심인을 전했듯이 오늘 이 자리도 불초
의 참 뜻을 실천하기 위한 결사의 자리
가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다례제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
장 지원,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등 사부
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행장소개, 추도사, 청법계, 법
어, 종사염반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
업회는 오는 9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
서〈최심귀명례-念弓〉특별전을, 10월
에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 학
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정본〈경허집〉발
간도 추진될 계획이다.

신중흥 기자 mota79@hyunbul.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
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
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
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
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
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
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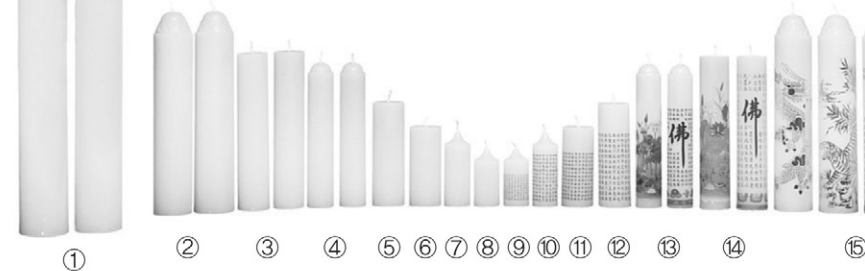
상선화재 생산물 화재 매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
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
다. 밀납양초는 특수PC접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
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
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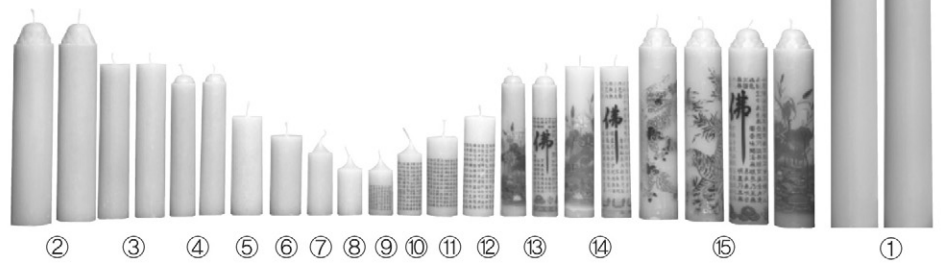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악쑥양초



- | | | | |
|---------------|---------------|---------------|---------------|
| ① 악쑥초 90cm | ② 악쑥초 연봉 원기둥 | ③ 악쑥초 돈타레 | ④ 악쑥초 2호 |
| ⑤ 악쑥초 1호 | ⑥ 악쑥초 4호 | ⑦ 악쑥초 1호 반야심경 | ⑧ 악쑥초 2호 반야심경 |
| ⑨ 악쑥초 3호 | ⑩ 악쑥초 4호 반야심경 | ⑪ 악쑥초 연봉 원기둥 | ⑫ 악쑥초 연봉 원기둥 |
| ⑬ 악쑥초 3호 반야심경 | ⑭ 악쑥초 4호 반야심경 | ⑮ 악쑥초 1호 반야심경 | ⑯ 악쑥초 2호 반야심경 |
| ⑰ 악쑥초 3호 반야심경 | ⑱ 악쑥초 4호 반야심경 | ⑲ 악쑥초 1호 반야심경 | ⑳ 악쑥초 2호 반야심경 |

한동밀납양초



- | | | | |
|---------------|---------------|---------------|---------------|
| ① 밀납초 90cm |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 ③ 밀납초 돈타레 | ④ 밀납초 1호 |
| ⑤ 밀납초 2호 | ⑥ 밀납초 4호 | ⑦ 밀납초 1호 반야심경 | ⑧ 밀납초 2호 반야심경 |
| ⑨ 밀납초 3호 | ⑩ 밀납초 4호 반야심경 | ⑪ 밀납초 연봉 원기둥 | ⑫ 밀납초 연봉 원기둥 |
| ⑬ 밀납초 3호 반야심경 | ⑭ 밀납초 4호 반야심경 | ⑮ 밀납초 1호 반야심경 | ⑯ 밀납초 2호 반야심경 |
| ⑰ 밀납초 3호 반야심경 | ⑱ 밀납초 4호 반야심경 | ⑲ 밀납초 1호 반야심경 | ⑳ 밀납초 2호 반야심경 |

원기둥나비



- 3+6연꽃나비A
- 3+6연꽃나비B
- 노랑
- 연두
- 백색
- 핑크
- 화단
- 주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영리 35-16